고가 3D TV·명품 특수…소비심리 회복

백화점 히트상품으로 본 올 유통 트렌드

올 한해 지역 백화점에서는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와 무더위, 한파와 같은 날씨 영향 관련 상품들이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0일 영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소비트렌드를 이끈 상품들은 3D TV, 워킹화·아웃도어 등 스포츠 관련 상품, 레인부츠, 초경량 패딩, 모피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고가의 3D·LED TV와 모피, 명품 등이 판매 호조를 보여 소비심리가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백화점 매출의 효자종목인 LED TV는 지난 6월 남아공월드컵,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열풍에 힘입어 반짝특수를 누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5~11월까지 LED TV 등 TV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 특히 고가의 3D TV는 가전제품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아웃도어 용품, 기능성운동화 등의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이들 제품들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멀티아이템'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웃도어 상품군 매출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는 지난해보다 무려 46%가 늘어 백화점 전체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도 아웃도어 상품 매출이 13.6%가 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10~20대 젊은층까지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워킹화'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1~11월까지 워킹화 매출은 지난해보다 약 12%가 증가했다. '리복'과 '프로스펙스'가 워킹화 출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뉴발란스'도 10대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다.

긴 장마와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 때 이른 추위 등으로 날씨 덕을 본 상품들도 많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는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품귀현상까지 나타났다. 지난 6~9월까지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보다 26.4%나 급증했다. 긴장마로 인해 '레인부츠'가 장마철 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라 20~3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1월부터는 때 이른 추위가 시작되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 영향으로 초경량 패딩, 모피 및 퍼(털) 제품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지난 11월까지 모피제품이 지난해보다 24%나 많이 팔려 백화점 관계자를 놀라게 했으며 여성캐주얼 브랜드에서도 퍼가 달린 니트, 조끼, 코트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까지 판매가 저조했던 남성복(20%)을 비롯해 고급 여성정장(23%)과 명품(28%)도 매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로마 양초로 분위기 내세요"

2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생활관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아로마 양초를 선보였다. 아로마 양초는 나쁜 냄새를 빨아들여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데도 도움을 준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光銀-리더스클럽-광주시 일자리 10만개 창출 협약

광주은행이 광주시와 함께 '지역사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시, 광은리더스클럽 등 3개 기관이 지역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우대와 제품 회원사 제품 우선 구매를, 광은리더스클럽은 채용 확대,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고용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10만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광주시, 광은리더스클럽과 손잡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北 리스크' 코스피 2020 지지…코스닥은 500선 붕괴

20일 우리 군이 연평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지만 코스피지수는 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2,020선을 지지했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500선을 무너뜨리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은행세 부과까지 더해져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장막판 하락하며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8.16포인트(0.90%) 내린 2,008.14로 출발한 뒤 6.02포인트(0.30%) 내린 2,020.28로 마감됐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7.45포인트(1.46%) 내린 503.29로 출발한 뒤 500선을 무너뜨렸다가 결국 12.79포인트(2.50%) 급락한 497.9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와 달리 취약성을 드러내며 500선이 한 번 무너진 뒤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북한발 리스크가 고조됐으나 북한이 유엔 핵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핵 연료봉을 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했다는 CNN방송 보도가 전해졌고 위기감도 누그러졌다.

다른 아시아증시는 일본 닛케이종합주가가 지난 주말 미국과 유사한 하락률 0.85%를, 대만 가권지수는 0.56% 내리는 등 북한 리스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41% 떨어졌다. 환율은 장중 치솟아 1,17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점차 충격이 잦아 들어 결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70원 내린 1,150.20원을 기록했다.

채권시장도 소폭 강세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포인트 내린 4.13%로 장을 마치고, 3년짜리 국고채 금리도 3.35%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55%로 0.02%포인트 하락했고, 1년 물 금리는 2.93%로 0.01%포인트 빠졌다. /연합뉴스

■ 새얼굴

"성장·기술성 평가해 정책자금 지원"

정진수 中企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장

"27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0일 부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정진수(51)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광주시·전남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최고의 중소기업 정책 중개 및 금융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신임 본부장은 광양 출신으로 순천공고와 인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박사 과정을 마친 학구파다. 198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해 연수원 교수, 전북지역본부 기술협력센터장, 경기서부 기술협력센터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간 현장을 누벼온 중소기업 전문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유통업 빅뉴스는 'SSM 갈등'

대한상의 '유통업계 10대뉴스' 스마트폰 쇼핑·배춧값 폭등 順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통업계 최대 뉴스로 꼽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유통업계 최고경영자와 학계, 연구소 등 유통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유통업계 10대 뉴스'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88.0%·복수응답)이 'SSM 갈등'을 가장 큰 뉴스로 꼽았다.

'SSM 갈등'에 이어 '쇼핑도 스마폰 시대'(57.8%), '배춧값 폭등'(37.3%), '온라인 쇼핑 성장'(37.3%),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사랑'(30.1%)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복합 쇼핑몰 시대 활짝'이 6위, '대형마트 10원 전쟁'이 7위, '불붙은 유통가 패권 경쟁'이 8위, '유통기업 해외로'가 9위, '해외 관광객 큰 손'이 10대 뉴스로 꼽혔다.

김승식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내년에는 국내외 경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제한된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젊을수록 '체크카드' 지갑엔 6만~7만원

나이가 젊을수록 '계획적 소비'에 도움이 되는 체크카드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국의 금융기관 이용자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지급수단 이용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크카드 보유 비율은 74%로 집계됐다.

체크카드 보유비율은 지난해 같은 조사의 71%보다 높아졌다. 신용카드 보유 비율도 88%에서 90%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에서 92%가 체크카드를 보유했으며 30대(73%), 40대(64%), 50대 이상(52%) 등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체크카드 보유 비율이 높았다.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29세 이하가 77%였지만 30대(97%), 40대(95%), 50대(95%) 등은 비슷했다.

응답자들은 신용카드를 평균 3.1장, 체크카드는 1.3장씩 갖고 있었다. 다만 최근 1개월 사이 실제로 사용한 카드는 신용카드 1.8장, 체크카드 0.8장이었다.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계획적 소비(4.23점), 낮은 연회비(3.86점), 발급 용이(3.14점), 소득 공제 유리(2.97점)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들의 현금 소지 규모는 평균 6만5000원이었다.

29세 이하(3만9000원), 30대(6만5000원), 40대(8만8000원), 50대(9만6000 60대 이상(9만2000 원) 이가 들수록 지갑에 현금을 많이 넣고 다녔다. /연합뉴스

금리 오르는데 대출 급증 정부, 가계 빚부담에 고심

대출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가계 빚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까지 맞물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 들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선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한 고정금리형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대출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는 모습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81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3조4000억원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의 상승세 속에 금융채 금리도 오르면서 결국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세에 주목해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정부가 총량 규제로 개별 은행의 영업에 간섭하는 방식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